

# “사육비 2배 늘어도 애지중지 키웠는데…” 살처분 망연자실

AI 비상...오리 살처분 현장 장흥군 부산면 가보니

### 농장주 “기름값·전기로 다 올라 힘든데 트라우마까지” 이중고 “또 빙자게 생겼다” 한숨...방역팀장 “철새 소리만 들어도 소름”

장흥군 부산면 가동리 오리농가 인근 도로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통제된 상태로 철저한 방역이 진행 중인 이곳은 오리농가로 통하는 4개 도로 중 3곳은 포크레인, 트랙 등으로 막혀 있었고 1곳만 이동식통제초소가 설치돼 방역을 거쳐야만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통제초소와 200여m 떨어진 오리농장에서 지난 15일 오리 4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전남지역 농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환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색의 방역복,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고무 장화, 그리고 하얀 마스크를 쓴 초소 근무자 2명은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를 기록하고 차량에 소독약을 연신 뿌리며 방역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도로에는 하얀 산화제 성분 소독약 액체가 흘러 넘치고 광역살포기와 살수차량, 도로소독차량 등이 투입돼 발생농가 인근에 연신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었다.

노효상 장흥군 가축방역팀장은 “이제는 겨울철 철새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면서 “한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파되는 AI 특성상,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을 ‘5분 비상대기’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가금류 농가가 ‘초비상’이다.

특히 고틀가에 난방비·전기요금 등 각종 사육비

가 올랐는데 조류독감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던 오리가 살(殺)처분 되면서 방역까지 해야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551개 농가에서 2432만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고 장흥에서는 28개의 농가에서 70만8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오리는 전남의 225개 농가에서 385만마리를 키우고 있어 우리나라 오리 사육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오리와 닭 등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농장 주인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농장 주인들은 올해 고틀가·고유가 등으로 사육비용이 2배 이상 늘어 피해가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류비 뿐만 아니라 항생제와 면역증강제 등의 약품비, 전기요금 등이 모두 크게 오른 상태에서 AI로 살처분까지 하게 돼 ‘빙덩이’에 안겨 댔다는 것이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AI가 발생한만큼, 올 겨울 안에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걱정거리다.

AI가 발생한 농장과 500m 떨어진 곳에서 1995년부터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인(62)씨와 위인숙(여·58)씨 부부는 지난 16일 키우던 오리 3만15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지난 2017년 AI 확산으로 오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두번째다.

김씨는 “2017년에 살처분 하고 1년 동안 오리를 못 키우면서 지금도 빛이 1억원이 넘는데, 올해 또 살처분 하면 빛이 더 سنگ길 겁니다”면서 “특히 올해



장흥군청 소속 방역차량이 고병원성 AI 환원이 검출된 농장 인근에 설치된 이동 통제 초소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오리 농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오리들이 살처분돼 손해가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반적으로 오리는 부화하고 나서 15일 동안은 24시간 난방을 해야 해 기름값 상승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등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리터당 822원에서 지난 10월 1398원으로 1년만에 70% 상승했다. 난방비로만 수백만원이 오른 셈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 농사용 전기요금도 농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항생제, 면역증강제 약품비, 약겨 등의 원료값, 인건비 상승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키우던 오리를 살처분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농장주도 있다.

옆 농가에서 AI가 확진된 탓에 위재열(49)씨도 부화한지 6일된 오리 91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위씨는 “지난 2017년에도 AI 확산으로 키우던 오리를 살처분해 충격을 받아 최근 5년간 오리 사육을 하지 않았다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시 오리 농사를 시작했는데, 6일만에 또 오리를 살처분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방역당국의 실효성 없는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12년 오리농사를 짓고 있는 이경환(65)씨도 방역당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5월 앞두고 오리를 살처분 한 이씨는 ‘하루아침에 키우던 오리 2만1500마리를 살처분 당하

고 속이 너무 상해 오늘에야야 농장에 나와 봤다”면서 “소규모 농가에 농장이 들어 갈때마다 신발을 갈아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전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차라리 장화가 깊이 잠길 수 있을 정도의 팔판 소독소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장흥에서 AI가 확진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생존율이 높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장흥=글·사진=전충희 기자 strong@/정충=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 초과근무 앓고 역대 수당 챙긴 경찰 6명 유죄

광주지법, 집행·벌금형 선고

초과근무를 하지 앓고도 수당을 챙긴 경찰들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 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과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 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총 7980여회에 걸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수당 22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와 공모해 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각각 850여만~22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A씨는 5명의 경찰관 이외에도 11명의 경찰관의 초과근무를 늘려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27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수 천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입력하고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점과 공모한 경찰들도 부당 수령한 수당을 납부하고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고속도로 뛰어든 여성, 달리던 차에 치여 숨겨

몸싸움 벌인 연인 조사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보행자가 사고 직전 연인과 몸싸움 벌인 뒤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도로에서 A(여·39)씨가 B(43)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뒷문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비아정류

장 인근에서 연인 C씨와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로 뛰어든다는 A씨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C씨의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A씨와 C씨가 타고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및 CCTV에 음성이 담기지 않아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조사하는 한편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몸쓸’ 운전학원 강사

수강생 계정서 사생활 영상 확보해 유포·협박 ...징역 3년

수강생의 온라인 계정에서 영상 등을 확보해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운전학원 전문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강생 25명의 온라인 계정에 몰래 접근해 확보한 사생활 동영상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목포의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위하는 피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용량 큰 주차 연승 동영상 보냈더니(A씨 본인의) 휴대폰에 계정에 로그인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계정을 확보해 총 26차

례에 걸쳐 피해자의 온라인 저장매체의 사진·영상·연락처 등에 접근했다.

또 수강생을 몰래 찍은 영상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 사진들을 수강생 지인 등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 지인들에게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강사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했다”며 “이외에도 사귀던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해 죄책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손님·직원 ‘도촬’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

전남의 한 호텔에서 입주업체를 운영 중인 50대가 호텔 내 손님, 직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A(52)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으로 호텔 건물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뒤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17일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이 찍힌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A씨의 노트북 컴퓨터에 호텔 건물 내부를 찍은 영상과 함께 다수의 음란물 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맞지만, 음란물 등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iyou@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51666	1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 751-1 1418㎡ [수목]	전	24,354,000	토지일부지상전선
2022타경 51796	1	순천시 황천면 수평리 433-22 1375㎡ [임종환1/6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답	6,416,760	말신전주소재
2022타경 51833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8-94 297.9㎡	대	116,181,000	경계측량요
2022타경 52089	1	고흥군 동강면 마린리 산182 24298㎡	임야	20,167,340	임목평가포함
2022타경 52140	1	순천시 가곡동 산91 17157㎡ [황계환1/2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임야	14,583,450	지분매각, 임목평가포함, 경계측량요
2022타경 52201	1	고흥군 정양면 강산리 165-1 165㎡	답	60,356,2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2263	1	여수시 화양면 이현리 187 53㎡	답	3,7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2324	1	여수시 호명동 산109 12694㎡	임야	53,314,800	임목평가포함, 경계측량요
2022타경 965	1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51-1 660㎡	전	26,796,000	제외인건물매각제외, 관공포함
2022타경 1166	1	여수시 화정면 여지리 532 1693㎡	전	23,7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1413	1	여수시 만흥동 1035 723㎡ [이경원83412/910980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전	15,226,000	지분매각, 경계측량요
2022타경 51543	1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540-5 373㎡	답	10,551,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1543	2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540-2 559㎡	답	15,693,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채수신고인이 해당경매공개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사건이 무효로 결정된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분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매각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사건이 무효로 결정된다. ⑤ 매각처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1593	1	선착항: 여수시 곡동항 선박종류와명칭: 동력선대형호 어선번호: 1610004-6471109 선질:FPP 총톤수:9.77톤 기관종류와수:선박동기월기관497.000마력1대 진수년월일:2016년10월20일 추진기종류와수:내선일체식추진기1기	선박	295,262,000	보관:여수시곡동항 [대선선박소개소강대용개보함],어업허가권포함,의장품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채수신고인이 해당경매공개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사건이 무효로 결정된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분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매각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사건이 무효로 결정된다. ⑤ 매각처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매각기일: 2022. 12. 5. (월) 10:00
- 매각장소: 2022. 12. 12. (월) 16:00
-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관한 기밀엄수 및 사기방지, 주 소, 입찰자, 보증금, 등용 기재하고 낙찰의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가격의 1% [10만원]에 해당하는 공문서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한 문서(보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특례에 따라 공동입찰신청서, 공동입찰보증서, 공동입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회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이 공동으로 입찰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최고가채수신고인과 저가채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처가 증빙하는 즉시 반환합니다.
- 매각일자 및 대금납부: ① 회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허가후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최종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기, 관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효하며, 회고의 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리권, 기입증명 등 순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리권이나 기입증명 등 서류는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③ 입찰보증서, 입찰보증서, 입찰보증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 후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에 매각대금 및 지정기, 관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효하며, 회고의 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의 주의와 지리권 등이 설정된 낙찰금과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나, 사업 자치단체장 등 관련 직원은 매각의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일반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매각일자 1주일 전부터 매각장내 명세, 현황조사보고서 및 각종명세서의 사본 등목을 준비한 문서 접합(인쇄)과 배치기나 방정대용량 용량여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① 매각대금 납부후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리권, 기입증명 등 순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리권이나 기입증명 등 서류는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③ 입찰보증서, 입찰보증서, 입찰보증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 후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에 매각대금 및 지정기, 관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효하며, 회고의 매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매각처는 낙찰자가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판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철회하거나 취소·경정된 경우, 또는 매각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② 신청에 후고의 경우는 매각일 당일 매각처에 신청하며, 출찰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에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대금 납부서 및 배서서를 신청합니다. 다만, 매각허가후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최종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022. 11. 2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